

경배와 찬양	임재 / 문들어 머리 들어라 감사와 찬양 드리며 / 아름다우신	다같이
기도		다같이
성경봉독	창 45:25~46:4	전승엽
말씀	인생의 모든 질문이 풀릴 때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10000 Reasons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 인생의 모든 질문이 풀릴 때 (창 45:25~46:4)

25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26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7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요셉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28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1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4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 줄 것이다.”

땡스기빙인 오늘 본문말씀은 사실 감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야곱의 생애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둘째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자, heel holder입니다. 나중에 그가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주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해 주셨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입니다. 그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을 낳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경쟁적이고 투쟁적이었지만 동시에 내성적이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성향 때문에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애를 편애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편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야곱은 본인도 편애의 희생자였지만, 조상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하였고,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보다 편애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계획이 많고 투쟁적이다 보니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그는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는 데, 그가 자기 인생을 기쁘게 누리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의 풀지 못한 의문은, 출생서열과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결정된 장자권이었습니다. 쌍둥이간에 태어난 몇분 안되는 시간 때문에 결정된 장자권을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나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도 그 아버지는 에서만 편애하였습니다. 또한, 에서는 본인 스스로 팔족 한 그릇 얻어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일방적인 속임수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그의 두번째 풀리지 않는 질문은 그가 하란땅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수도 있는 일이지만, 불같이 화가 난 형 애서를 피해 그는 외삼촌 댁으로 피해 갑니다. 이 일은 내성적인 야곱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베게 사건)

세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정 반대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삶은 이와 정 반대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를 계속해서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14년간이나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의 결혼생활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내는 항상 질투와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 준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죽었다고 야곱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죽는,’ 마치 저주 같은 느낌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으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습니다. 야곱은 이에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는 길에서, 자기 고향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감격적인 약속을 다시 들려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야곱은 130세나 돼서 드디어 그가 평생 갖고 있던 모든 인생의 질문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집트에서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계셨으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많은 자녀를 낳아야만 하였고, 그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의 힘겨운 무게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자기 삶의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야곱에게 인생의 땡스기빙이었습니다. 우리도 끈기 있게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신 비전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설명되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땡스기빙입니다.

###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야곱과 같이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3. 오늘 야곱의 반전 이야기를 통해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 기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시다. 저희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내려 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 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응답찬양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Ten thousand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Ten thousand years and then forevermore

## 파송찬양

###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제 49권 23호  
**NOV 21**  
2021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 첫주 제외)
정기 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 am
토요 무릎 기도회	토 6:30 am

#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 PSALM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주일 현장 예배 재개 안내**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예배와 함께 실시간 ZOOM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추수 감사 주일**  
올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추수 감사절 브레이크**  
11/24~11/27 동안의 새벽기도, 토요 무릎 기도회, 청년 금요기도 모임은 쉽니다.
- KM-EM 청년 연합 Thanksgiving Banquet**  
일시/장소 : 11월 21일(오늘) 6시, 친교실
- Thanksgiving 친교모임**  
땡스 기빙동안 어스틴에 남아계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문의:김경윤 형제 (516-353-8719)
- 세례, 입교 및 성찬**  
12월 12일 (주일) (세례/입교 신청 : 11/28까지)  
세례/입교 교육 : 12월 4일 오후 2~4시 ZOOM으로  
세례/입교 문답 : 12월 11일 오후 3시  
성찬: 온라인/ 현장 동시에 (청년 예배 -담임목사님께서 집례)
- QT 교제 12월호 생명의 삶 구입 안내**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5월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체크, 벤모 모두 가능)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전 등록**  
대상 : 영주권자,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 국적 소유자  
일시/장소 : 11/28(주일) 9:30AM~2:00PM. 교회 로비  
준비물 : 여권 또는 여권번호  
영사관 직원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2명 모집 (문의 : 이강현 목사)

- 2021 AKPC 장학생**

고현이 (Austin Community College)	김영원 (Pensacola Christian College)
김성완 (SWBTS)	김호제 (SWBTS)
박성은 (SWBTS)	오세원 (UT at Austin)
Lee Beomhak (UT School of Law)	이현태 (SWBTS)
파르비나 (경희대)	Sophia Kim (Stony Brook University)
Isabelle Park (UT at Austin)	Grace Lee (UT at Austin)

- 주일학교 교사모집**  
영유아부 : 교사, 자원봉사자(아이 돌봄) 모집 (문의 이희정 전도사)  
유치부 : 교사 모집 (문의:곽은희 전도사)



## 청년부를 섬기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광현	antoine7190@gmail.com
간사	이찬재	leechanjae@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 psalm@akpc.org
- www.akpc.org
-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